

‘혁신계’ 4인방, 한달여 압박에도 당 변화 없어... ‘결단의 시간’

원칙과 상식, ‘국민과 함께 토크쇼’ 개최...비명계 세 과시 지도부에 혁신과제 전달 예정...중대 결심에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한달여 동안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이 결단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달 내에 당에 변화가 없을 경우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친명계를 압박했다.

이들은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은 이달 중순께다. 원칙과 상식은 중대 결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맞물려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원욱·조승천·김종민·윤영찬 의원이 모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오후 2시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연다. 앞서 이들은 청년, 전문가 등과 초청해 민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

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친이낙연계 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도 참석하기로 했다. 원내외 비명계가 모여 세 과시를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천행동은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주축인 원외시민모임으로, 신경민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병석 ‘모색과 대안’ 대표와 이낙연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이 활동 중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사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원칙과 상식은 이 전 대표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참석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원칙과 상식의 행보를 가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토론회 이후 그동안 청취한 민심을 기반으로 혁신 과제를 작성해 이 대표와 지도부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크쇼

취지에 대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뭐고 어떤 식으로 혁신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좀 모아보려고 한다”며 “우리 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좀 정리된 명료한 혁신 과제를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여부가 이들의 중대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과 상식은 출범 선언 당시 당에 변화가 없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만약 중대 결심이 타당, 신당 창당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과 상식은 그동안 중대 결심에 대해 “타당이나 신당 창당은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방송 인터뷰에서 “육상대회 멀리뛰기 종목은 그 자리에서 바로 뛰는 것이 아닌 도움닫기를 한 후 뛰는 것(신당 창당)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상 신당 창당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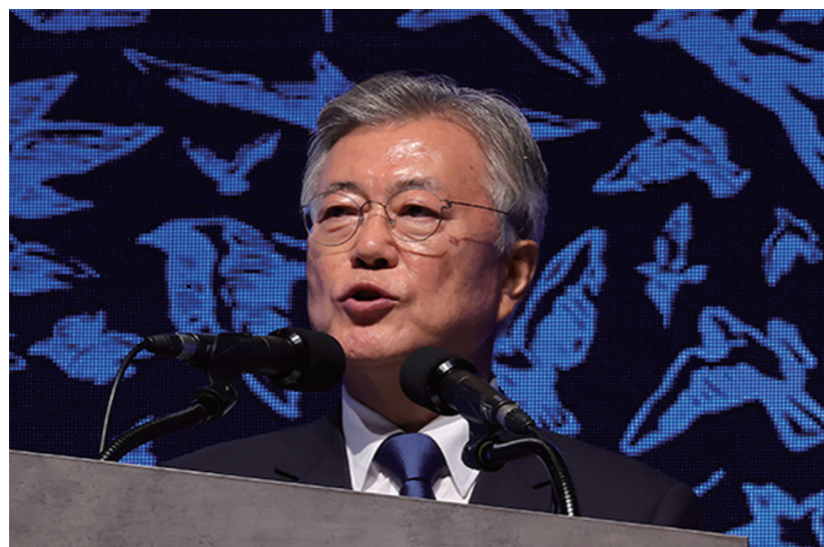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여전히 중대 결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단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켜 본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보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민주당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기는 조금 미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조금은 변화를 늦춰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문재인 “합의 파기·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들려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

〈핵의 변곡점〉은 북핵의 실제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이념적 결정으로 상황 악화돼”

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여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들려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빼앗겼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집착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화순군의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



화순군의의회는 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38건 및 일반 안건 9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구북구 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약 609억 원 감소한 8,32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그리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인 치안센터 폐지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대 특별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당초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18개월로 변경해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일정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